

국 어

1.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윗목 ② 윗돈 ③ 위층 ④ 웃웃

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문장 중 통일성을 가장 해치고 있는 문장은?

- ① 현대인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텔레비전은 계속해서 상품 광고를 내보내고, 현관이나 대문 앞에는 광고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② 그런가 하면 전봇대에까지 무엇인가를 선전하는 종이가 빼곡하게 붙어 있고, 건물 외벽의 절반 이상을 광고판이나 광고 문구가 뒤덮고 있다.
 ③ 이들 광고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현대인 치고 광고에 혹해서 제품을 사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④ 광고의 시대, 예술성 높은 광고를 감상하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고의 본질을 명확히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3.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무릇 四千年이 넘는 생활의 역사를 가진 만큼 그 발전 시기마다 각각 특색을 가진 문학이 없을 수 없고, 문학이 있었다면 그 중추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 문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대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성립하는 동시에 벌써 각자의 감정과 의사를 표시하려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며, 삼라만상의 대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울동적이고 음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시가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사람의 지혜가 트이고 비교적 언어의 사용이 능란해짐에 따라 종합 예술체의 한 부분으로 있었던 서정문학적 요소가 분화·독립되어 제요나 노동요 따위의 서정시로 발전하여 갔으리라 추측된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학사상 시가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지니고 있다.

- ① 왜냐하면 - 그리고 - 그러므로
 ② 그리고 - 왜냐하면 - 그러므로
 ③ 그러므로 - 그리고 - 왜냐하면
 ④ 왜냐하면 - 그러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가장 잘 배열한 것은?

- (가) 탈세, 특히 재계 거물들의 탈세는 국가 권력의 기초를 허무는 것으로, 심각한 반국가 행위로 다스리는 것이 옳다.
 (나) 우리가 세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는 인식은 ‘억울하게 뜯기는 돈’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탈세자들에게도 굉장히 관대하다.
 (다) 특히 재계 인사들이 탈세를 했다는 소식에는 ‘고래가 물을 뿜었나보다’는 정도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때가 많다. 이러한 인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 병역을 기피한 자들과 똑같은 의미에서 ‘조세 도피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마)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조세 피난자’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 ① (가) - (나) - (다) - (마) - (라)
 ② (나) - (다) - (가) - (마) - (라)
 ③ (나) - (가) - (다) - (라) - (마)
 ④ (나) - (가) - (마) - (다) - (라)

5.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한글은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② 한글은 개 짖는 소리, 학 우는 소리까지도 완벽하게 적을 수 있다.
 ③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을 때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른다.
 ④ 현재 우리말에는 과거 몽골로부터 유입된 외래어도 포함되어 있다.

6. 다음은 국어사전에 수록된 ‘막-’의 풀이이다. 밑줄 친 부분의 예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막- 【접사】

0.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거친’, ‘품질이 낮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0.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닥치는 대로 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0.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주저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① 막별이 ② 막국수
 ③ 막담배 ④ 막고무신

7. 다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맞는 것은?

말하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설명이다. 설명은 청자가 모르는 사실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식 체계를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설명의 방법에는 지정, 정의, (㉠)와/과 (㉡), (㉢)와/과 (㉣), 예시가 있다.

지정은 가장 단순한 설명의 방법으로 사물을 지적하듯이 말하기를 통하여 지적하는 방법이다. 정의는 어떤 용어나 단어의 뜻과 개념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어떠한 대상을 파악하고자 할 때 대상을 적절히 나누거나 묶어서 정리해야 하는데,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 가면서 설명하는 (㉠)의 방법과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묶어 가면서 설명하는 (㉡)의 방법이 있다. 설명을 할 때에 서로 비슷비슷하여 구별이 어려운 개념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지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둘 이상의 대상 사이의 유사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을 (㉢)(이)라 하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을 (㉣)(이)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평이한 화제를 가지고도 개성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시는 어떤 개념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예를 직접 보여 주거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	㉡	㉢	㉣
①	대조	비교	구분	분류
②	비교	대조	분류	구분
③	분류	구분	비교	대조
④	구분	분류	비교	대조

8. 다음 중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문장은?

- ① 당신은 이제 홀몸이 아니고 만삭의 몸이니까 조심해요.
 ② 그의 초라한 모습이 내 호기심에 불을 당졌다.
 ③ 이제 제법 집안일을 알은체한다.
 ④ 이 사건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9. 조선조 실학자의 한 사람인 홍대용이 저술한 <의산 문답>의 일부이다. 다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태양은 그 몸체가 지구보다 몇 곱절 큰데, 그 바탕은 (㉠)이며 그 빛깔은 붉다. 바탕이 (㉠)인 까닭에 그 본성은 따뜻하고, 빛깔이 붉기 때문에 그 빛은 밝다.

달은 그 몸이 지구보다 작으니 지구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 바탕은 (㉡)인 까닭에 그 본성은 차고, 빛깔이 맑기 때문에 태양에 비치어 빛을 낸다.

지구는 태양과 달, 그리고 금성·수성·목성·화성·토성, 즉, 칠성의 찌꺼기로 그 바탕은 (㉢)이며, 그 빛깔은 어둡고 흐리다. 바탕이 (㉢)인 까닭에 그 본성은 차고, 빛깔이 어둡고 흐리기 때문에 태양에 비치어도 밝은 빛이 적다.

	㉠	㉡	㉢
①	불	얼음	얼음과 흙
②	불	얼음과 흙	얼음
③	얼음과 흙	불	얼음
④	얼음	불	얼음과 흙

10. 아래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예문의 괄호 안에 넣을 가장 알맞은 단어는?

【뜻풀이】

경험(經驗)에 의하지 않고 순수(純粹)한 이성(理性)에 의하여 인식(認識)하고 설명하는 것

【예문】

당신 생각은()이야, 이성(理性)에 의한 분별(分別)에만 기초하니까. 경험(經驗)도 필요한 거야.

- ① 사색적(思索的) ② 사유적(思惟的)
 ③ 사상적(思想的) ④ 사변적(思辨的)

11. 다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몇 년 전에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면서 2015년 국민소득 3만 5,000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등 4대 기술혁신 사업화, 제조업과 인프라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 체제 구축, 교육 및 의료 등의 산업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산업계의 바람과 달리 일선 교육 현장에선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 기피, 의약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국가 발전 토대가 흔들릴까 걱정된다. 포스텍 수석 졸업생이 의대에 편입학하고 지방 의대 입학생의 대학수학 능력시험 점수가 서울 명문대 이공계 입학생의 점수보다 높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주요 국립대 자퇴생의 절반 이상이 이공계 학생이며, 공대 졸업 후 취업 대신 고시촌에 몰리는 현상 등은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미 기업에서는 우수 이공계 출신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경영진은 물론이고 상장 제조기업의 핵심 임원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같이 이공계 출신이 국가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청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이공계에 진학하려면 수학, 물리학 등 배우기 어렵고 수능 점수도 올리기 힘든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빠른 과학 기술의 진보로 의학이나 법학 등에 비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만으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현장에 배치될 확률이 높아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힘들 수 있다. 이 밖에 의료나 금융 분야보다 보수가 적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나 교육 등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 인재가 이들 분야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보건 의료산업의 비중(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 및 의료 총지출 6.5%)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우수 인재의 특정분야 쏠림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 강국에서는 제조업이 전제되지 않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 제품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이들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만을 키워서는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이 이공계 진학을 선호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면허제도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이들 분야에서 이른바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고 산학 공동연구 참여자에 대한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리더쉽 및 의사소통 교육, 산업현장 체험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학, 과학 교육의 혁신과 함께 고교 때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를 구분하여 수학, 과학 교육을 차별화하는 것이 올바른지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수 이공계 인력이 양성되어 제조업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도 살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 ① 의료와 법률 서비스 분야의 진입 장벽이 높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 ② 현재의 수학과 과학 교육은 이공계를 기피하는 한 원인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 ③ 의료, 법학 분야보다 이공계의 지식 습득 사이클이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하다.
- ④ 의료와 법률 서비스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국가발전 토대를 빠르게 개편해야 한다.

12. 작자가 아래의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삼가 생각건대 공경을 바치고 예를 다하는 것은 임금에 이에 스승을 얻는 것이요, 어진 자를 천거하고 능한 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돕는 바입니다. 신이 전번에 운명(綸命)을 받들어 오래도록 서연에서 모셨는데, 거지(擧止)가 우소(迂疏)하여 족히 잘못을 바꾸지 못하였고, 견문(見聞)이 거칠어서 올바르게 바꾸는 데에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신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데 누구를 차마 속이겠습니까? 하물며 백발은 성성하고 눈까지 어두움이리까! 귀는 허승(許丞)처럼 어둡고 팔뚝은 두자(杜子)처럼 불수가 되었습니다. 현지(軒墀) 임금을 가리킨다.)를 사모하다가 진실로 상유(桑榆)의 늦은 햇빛을 거두지 못하면, 구렁에 굴러 떨어져 송백(松柏)이 겨울에 푸른 절개에 보전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 ① 나이 어린 임금에게 완곡하게 진언하기 위함
- ②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죄하기 위함
- ③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
- ④ 늙고 병든 신세를 하소연하기 위함

13. 다음 중 외래어의 우리말 표기가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부르주아, 싱가폴, 아이새도, 콘텐츠, 카라멜, 넌센스, 프러포즈, 아랍 에미리트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중 그 용어 해설이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미역국을 먹었다'처럼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을 '속담(俗談)'이라 한다.
- ②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라 분화하는 방언을 '사회방언(社會方言)'이라 한다.
- ③ 특정 집단이 외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숨길 목적으로 쓰는 말을 '속어(俗語)'라 한다.
- ④ 사람들이 불쾌감이나 공포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말을 '완곡어(婉曲語)'라 한다.

15. 다음은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피땀 어린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 결실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렀고 경제 성장률 또한 세계 16위에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성은 어떠한가. 아직도 차량 문틈 사이로 함부로 담배꽂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는커녕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일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거리낌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면 착잡한 마음마저 들기도 한다.

물론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기초 질서 정신이 자리 잡지 않고는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무질서라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 우리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① 경제 성장에 비해 국민성이 낮아 걱정이다.
- ②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③ 기초 질서 정신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 ④ 기초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

16. 다음 예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예문】

너는 학생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서 한발 비켜서야 한다.

- ① '너'와 '그'는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품사는 같다.
- ② 이 문장은 1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 ③ '한발'은 '한'·'발'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④ '위험한'과 같은 품사의 예로, '헛 물건'의 '헛'을 들 수 있다.

17. 다음의 밑줄 친 ‘비’의 속성이 나머지 셋에 비해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비가 옵니다. / 다정한 손님같이 비가 옵니다.
/ 창을 열고 맞으려 하여도 / 보이지 않게 속삭
이며 비가 옵니다. // 비가 옵니다. / 뜰 위에,
창 밖에, 지붕에, / 남모를 기쁜 소식을 / 나의
가슴에 전하는 비가 옵니다.
- ② 길고 눈부신 바늘처럼 / 비는 또 내 / 얼굴에
꽃힌다. / 수백 째의 바늘이 쏟아져 / 정수리와
명치, 오금에 / 팽팽하게 박힌다. // 죄인처럼
묶여 / 뻣뻣하게 침(針)을 꽂고 서 있는 / 나
// 단죄.
- ③ 짐을 매어 놓고 떠나려 하시는 이 날, / 어둔
새벽부터 시름없이 내리는 비. / 내일도 내리오소서
연일 두고 오소서. // 잡았던 그 소매를 뿌리
치고 떠나신다. / 갑자기 꿈을 깨니, 반가운
빗소리라. / 매어 둔 짐을 보고는 눈을 도로 감으
오.
- ④ 비는 고요한 노래를 불러 / 빗꽃 향기 풍기는
황혼을 데려온다. // 비는 어디서 자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 순이 우리가 촛불을 가지고
마주 앉을 때 // 비는 밤 깊도록 창밖에서
종알거리다가도 / 이윽고 아침이면 어디론지 가고
보이지 않는다.

18.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다음 표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끼리 가장 잘 짝지은 것은?

- ㉠ 청소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통행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수의 법률들이 이미 존재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1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무는 역두에서 너를 보냈다.
비에야!

개찰구에는
못 쓰는 차표와 함께 찍힌 청춘의 조각이 흩어져 있고
병든 역사(歷史)가 화물차에 실리어 간다.

대합실에 남은 사람들
아직도
누굴 기다려

나는 이곳에서 카인을 만나면
목놓아 울리라.

거북이여! 느릿느릿 추억을 싣고 가거라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路線)이
너의 등에는 지도처럼 펼쳐 있다.

- 오장환, 〈The Last Train〉

- ① ‘못 쓰는 차표’와 ‘청춘의 조각’을 병치함으로써, 청춘이 되돌아 올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낸다.
- ② 화물차가 떠난 후에도 ‘대합실에 남은 사람’은 화자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카인’은 비애를 보낸 후에도 남은 죄의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의 ‘비에’를 보냄으로써 겪는 해방감을, ‘목 놓아 우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20. 다음 우리말 표현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다.
- ②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③ 행정 당국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재점검하고 긴급 대책을 펴야 한다.
- ④ 각 지역에 설치된 은행은 혈관이고 중앙은행은 마치 심장 구실을 한다.